

양지회 『표해록』의 서술적 특징 연구

『승사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진성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국문학(한문학) 전공
weekenders@naver.com

- I. 머리말
- II. 사명감과 애민 의식의 발현
- III. 사건 중심적 이야기 구성
- IV. 복합역경담의 서사문학화
- V. 맺음말

I. 머리말

표해류 작품은 조선인의 비공식적 해외여행기로서의 가치 외에도 조선인 표류 사건의 실상을 기록한 하나의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표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을 온전하게 기술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조선시대에 수많은 표류 사건이 있었고 생존된 인물들이 직접 기록하거나 보고서로 올린 다량의 표해록(標海錄)이 전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표류의 현황이나 여정, 현지의 견문 및 인적교류 정보 등을 꼼꼼하게 기록한 작품은 최부(崔溥)의 『표해록』(1488)과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1771), 최두찬(崔斗燦)의 『승사록(乘槎錄)』(1818) 등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풍부한 내용을 갖춘 양지회(梁知會)의 『표해록』(1818)이 새롭게 발굴되고 소개되어¹⁾ 한국 표해류 작품 연구에 보탬이 되었다.

양지회의 『표해록』은 장서각 유일본으로 1책 38장의 한문 초고본(草稿本)이며, 1821년 장악원 집의(掌樂院執義) 최시순(崔時淳, 1755-?)이 쓴 서문과 일기체 형식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두찬의 『승사록』과 동일하게 1818년 조선인의 중국 강남 표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1818년 1월 나주(羅州)의 선비 양지회가 제주의 기근을 진휼(賑恤)하고 귀환하던 중 태풍을 만나 표류하여 중국 절강성(浙江省) 영파부(永波府)에 도착해 강소성(江蘇省)·산둥성(山東省)·연경(燕京)을 거쳐 그해 11월 나주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²⁾

이 작품이 발굴되기 전까지 1818년의 표류 정보는 최두찬의 『승사록』을 통해서만 이해해왔다. 『승사록』은 당시 표류 상황을 비롯한 강남의 풍속에 대한 기술, 중국문사들과 수창한 시문(詩文) 등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인적교류 내용과 수창시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당시 표류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³⁾ 이번에 발굴된 양지회의 『표해록』은 시문을 거의 배제하고 표류 현황이나 현지

1) 박진성, 「신자료 梁知會의 『漂海錄』 연구」, 『어문연구』 44호(2016).

2) 양지회 『표해록』의 상세한 서지사항과 표류 정보,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이은주, 「19세기 漂海錄의 모습과 變貌樣相-崔斗燦의 『乘槎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9호(2003), 176쪽.

사건에 대해 충실히 서술하여 『승사록』과 상보적(相補的)으로 당시 표류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에는 최두찬이 미처 기록하지 않았거나 소략한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바로 탐라 상인과의 갈등 사건이다. 이는 표류 중 리더 역할을 했던 양지회·최두찬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킨 탐라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승사록』에는 없고 『표해록』에만 기록되어 있다. 최근에 발견된 최부의 『금남표해록』 한글본(서강대학교 소장)처럼 같은 자료라도 독자층이나 필자과정에 따라 원전이 일부 축약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⁴⁾, 양지회의 기술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인물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고 최두찬은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사록』에서 이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분명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두 작품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와 같이 서술의 유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양지회만 이토록 자세하게 서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명하기 위해 작가의식과 서술적 특징 차원에서 접근해보았다. 더 나아가 이 기록이 지니고 있는 문학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양지회 『표해록』의 문학적·역사학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818년 표류 사건의 새로운 면모들이 더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II. 사명감과 애민 의식의 발현

이 장에서는 우선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의 발단 원인과 전개 양상, 이를 바라보는 양지회의 시각과 대응 자세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양지회라는 인물의 인간적 자질과 내면 의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표해록』에 기록된 해당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4) 유춘동, 「새 자료 서강대 소장, 최부(崔溥)의 『금남표해록』 한글본 연구」, 『열상고전연구』 53호(2016), 299-300쪽.

같다.

앞서 물 향아리가 잘린 돛대에 이미 깨져버려 점차 갈증을 견디기 어려웠다. 바닷물은 너무 짜서 마시면 잠시 목마름이 해소된 듯했지만 혹여 마시는 것에 빠져들면 더욱 갈증에 시달리게 되니 더욱 고통스러웠다. 간혹 돛의 이슬을 핥기도 했지만 이슬에 젖은 즉시 말라버렸다. [...]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물을 소주처럼 끓인다면 분명 잔맛이 없어질 것이었다. 시험해보았더니 과연 그러한지라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탄복하였다. 그러나 물을 끓여서 얻은 바가 매번 한 사발도 차지 않아 50명이 차례대로 물을 끓여서 오늘 아침에 마신 자가 다음 날 저녁에 다시 마시기로 했지만 이 또한 어찌 목마름을 해소하기에 충분하겠는가? 서로가 먼저 마시고 많이 마시려고 다투어서 힘이 센 자는 간혹 많이 먹고 기운이 약한 자는 마시지 못하기도 했으며, 간혹 손으로 당기다가 떨어지기도 했으니 내가 생각한 갈증을 구제하려는 계획이 도리어 싸움의 빌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정색하고 깨우쳐 말하기를, “대개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반드시 죽을까봐 함께 근심하기를 진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한껏 욕심 때문에 물 마시길 다투다면 몸이 죽길 기다릴 것도 없이 마음이 먼저 죽어버려서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이오. 지금부터 반드시 일정한 법을 정하겠소. 순번에 따라 물을 끓여 차례대로 똑같이 마신다면 될 것이오”라고 했다. 기운이 약한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힘이 센 사람은 모두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나는 아단치고 타일러서 마침내 법칙을 정하였다.⁵⁾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양지회 일행은 표류 중 물 향아리가 깨지고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양지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 마침내 바닷물을 끓이는 방법을 고안하여 식수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는 물을 먼저 마시기 위해 싸움이 발생하였다. 양지회는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고 결국 순번을 정하여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게 된 힘이 센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탐라인들이다. 양지회는 단호하게 그들을 깨우치며 끝내 법칙을 정하긴 했지만, 탐라인들은 양지회에게 연장자라

5) 양지회, 『표해록』. 先時, 水缸已破於橋折, 稍不耐渴. 海水至鹹, 飲輒助渴, 或飲已溺而溺潤且辛, 或舐橋露, 而露濕即乾. [...] 余黔料煮水如燒酒, 則必無鹹味矣. 試之果驗, 衆皆驚服. 然煮水所得, 每不滿一椀, 五十人次第煮飲, 而飲於今朝者, 更飲翌夕, 此又何足以救渴乎? 相與爭先爭多, 而力壯者或多得, 氣弱者或未飲, 或手挽致傾, 余慮救渴之計, 反起爭端. 正色諭之曰: “凡我同舟, 共罹必死, 而苟不平心, 徒欲爭飲, 則不待喪身, 心已先喪, 不可一日居也. 自今必定常式, 逐番煮水, 傳次均飲, 可也.” 氣弱者多欲之, 而力壯者皆不服, 於是余責而諭之, 竟定常式.(이하 『표해록』 원문은 출처를 생략함.)

고 땀감 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탄죽을 거는 등 그 불만을 없애지 못했다.⁶⁾

이처럼 탐라인들과의 갈등을 촉발한 원인은 표류 중의 식수 문제였다. 일찍이 최부가 오줌까지 받아 마셨다고 했던 것처럼⁷⁾ 표류인에게 식수 문제는 목숨과 연관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표류 당시 양지회는 자신이 배 안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는 것에 큰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기에⁸⁾ 누구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표류와 같은 큰 재난 속에서 어른의 역할과 책임은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지회는 연장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묘책을 내어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순번대로 물을 마시는 약속이나⁹⁾ 땀감을 구하는 일에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가 이 문제 해결에 주도적이었던 것은 단지 연장자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관원 신분으로서 투철한 사명감 또한 크게 작용하였다. 다음 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호라! 사람의 한 육신은 기한 있는 짧은 수명도 응당 천명에 달려 있거늘, 한 조각 부평초처럼 바다의 팔방을 떠다니며 고향과 떨어지니, 위로는 선영에 묻히지 못할까 걱정이요, 아래로는 처자식을 보지 못할까 두려우니, 장과 폐가 빙빙 꼬이는구나. 차츰 이런 생각이 미치니 잠들고자 해도 잠을 못 자고 잇고자 해도 잇히지가 않는구나. 철로 된 간과 돌로 된 창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마음이 구슬프고 목이 메지 않으리오, 다만 이번 걸음이 사사로운 연고 때문이 아니라 실로 나라일에 참여한 것이니, 그 스스로 위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단지 이것뿐이로다.¹⁰⁾

위 인용문은 식수 문제가 일어난 날의 마지막 기록이다. 한 조각 부평초처럼 망망대해를 떠도는 처지에서 식수로 인한 마찰이 불거지자

6) 耽羅人略干輩，以不能專飲，故嫉余殊深，言曰：“飢渴之餘，斧木需火，豈以年高，而不分勞乎？”

7) 최부, 『표해록』, 윤1월 10일. “머칠 뒤 감귤과 청주조차 다 없어지자, 마른 쌀을 씹기도 하고 오줌을 받아 마시기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오줌마저도 찾아버렸고, 가슴이 타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번역문은 최부 저, 서인범·주성지 역, 『표해록』(한길사, 2004)을 참조하고 일부 수정함].

8) 而余於一舟年最高，若先自沮，則是朱序之先呼秦敗也。

9) 余自念既爲一舟之長，而循已忘功，則反取譏辱，故一如初言堅定約束。

10) 嗚呼！吾人一身，壽短有期，當付天命，而但一萍浮海八口隔鄉，上而恐不能埋身先隴，下而恐不能對面妻孥，腸回肺曲，次次念及，欲睡未睡，將忘不忘。既非鐵肝而石腸，寧不心淒而喉咽。但是行也，非以私故，而實幹國蠱，則既自慰者，只此已而。

양지회는 죽음을 실감하였다. 그리고는 이내 고향 땅에 돌아갈 수도, 처자식을 만날 수도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게 극한의 고통을 겪는 와중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나라일에 참여해 봉변을 당한 것이므로 사사로운 죽음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사명감을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양지회는 조정의 진흥령을 받고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관료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애초 나주목사가 수행자를 탐문했을 때 선뜻 자원했던 첫 번째 이유도 나라일이라는 명목 때문이었다.¹¹⁾ 표류와 같은 재난 속에서는 관료로서의 리더십과 사명감이 더욱 절실해지기도 한다. 일찍이 최부가 조선의 관료로서 표류인을 통제하고 중국 관료들과 적극 응대하여 안전하게 귀환한 사례가 있고, 이흠(李愼, 1568-1630)은 1629년 해로사행 도중 풍랑을 만나 일행 대부분이 익사하였음에도 홀로 북경에 이르러 임무를 다한 뒤, 그곳에서 병사하기도 하였다.

양지회 역시 표류의 위기 앞에서 리더십과 사명감을 발휘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표류인들도 자연스레 그의 통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최두찬은 귀국 후 양지회에게 편지를 전하면서 그가 이익과 손해 때문에 굴하지 않고 죽고 사는 것으로 슬퍼하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였다고¹²⁾말한 바 있다. 식수 문제 해결은 표류인들이 이후 양지회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통제가 불만이었던 탐라인들 역시 대중의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 상황에서는 큰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표류가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면서 탐라인들의 이기심도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조된 갈등은 양지회와 최두찬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다.

유씨(劉氏)와 같은 몇몇 탐라인들은 몸은 비록 여기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상실하여 식량이 거의 떨어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홀로 배 채우기만 생각하였고, 또 나와

11) 本州城主以朝令，將移粟，集諸僚佐，問可行者。衆以梁知會應，知會拜辭，鈴軒將行告曰：“耽羅民貫鄉也，一可以幹國蠱，二可以拜先廟。”

12) 최두찬, 『승사록』, 부록 「이별할 때 양지회에게 주다」. “양장으로 군화씨가 이익과 손해 때문에 굴하지 않고, 죽고 사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양장로에게 의지하였음을 나는 여기에서 더욱 증험할 수 있다.” [번역문은 최두찬 저, 박동욱 역, 『승사록』, 조선 선비의 중국 강남 표류기』(휴머니스트, 2011)를 참조하고 일부 수정함. 이하 번역문도 동일.

최군(최두찬)이 정한 공정한 약속을 싫어하여 수시로 우릴 죽이길 도모하면서 기필코 바닷속으로 밀어 빠뜨리고자 했다. 작은 기미라도 보이면 말로 드러내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밤에는 복두성을 살펴 방향을 정하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으며 애써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집중해 이상한 낚새만 있어도 의심하고 감히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다. 나와 최군은 돌아가며 잠을 나눠 자면서 갑작스레 일어날 근심을 막았다. 이로써 마침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아! 오랑캐와 월나라가 같은 배에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이거늘, 저들이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함께 큰 위협에 처해 있는데도 오히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니 어찌 그렇게 하늘이 내려준 품성이 다르단 말인가. 진실로 목마름과 배고픔이 드러나면서 그 어진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¹³⁾

표류 14일째, 표류인 가운데 아이 두 명이 요절하는 사건을 겪을 만큼 표류인들의 고통과 절망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까지 죽어나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탐라인들은 자신의 잇속 채우기에만 몰두하며 진상을 부렸다. 더구나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던 식수 약속을 핑계 삼아 양지회와 최두찬을 살해하려는 음모까지 세웠다. 자신들의 이기심을 통제하던 두 사람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급기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들의 흉계를 눈치챈 양지회는 최두찬과 교대로 잠을 자면서 겨우 위기를 벗어났다. 이 일을 겪으며 양지회는 하늘이 내려준 품성의 차이를 한탄하였다. 그러나 이내 표류로 인한 기갈(飢渴)이 빚어낸 일이라며 이해의 태도를 취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본능이 사람을 결국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양지회의 마지막 말을 통해 그가 남다른 아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아량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표류 상황에 대한 이해 때문만이 아니라 관료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애민(愛民)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지회의 이해심이 무색할 만큼 탐라인들의 이기적이고 방자한 행태는 중국에 도착하여 귀국할 때까지도 그치지 않았다. 최두찬은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도착하자마자 의주부윤에게 장계를 올려 탐라인들이 자신들을 모살하려 한 사건을 고하고 죽음으로 단죄하길 요청했다.¹⁴⁾ 그러나

13) 劉如耽羅人略干輩，身猶在此，心已喪失，見見糧之殆盡，懷獨喫之肝腸。又嫉余及崔君之公正約束，往往謀殺，必欲推納于海壑，見於幾微，形於言語，不一不再。而但余以夜仰察北斗，以方位定，耐忍飢渴，以勵神氣收，疑有異枝，敢不輕發。而余與崔君更迭分睡，以防橫患，以故竟免禍焉。噫！胡越同舟，其心一也，而彼以一國之人，共值大厄，猶懷異圖者，豈其天賦之不均乎？實出於渴喉飢腸，喪其良心也。

14) 蓋先是同漂耽羅人二十餘員，自在漂中潛懷謀殺之心，崔君斗絜憤之不已，及至義州，崔

양지회는 최두찬의 계획에 반대하였다. 비록 그들이 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힘들게 귀국하자마자 20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은 나라의 백성을 버리는 행위이므로 속죄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⁵⁾ 양지회에게 탐라는 자신의 관향인지라 그곳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아무리 못된 짓을 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백성을 죽일 수 없다는 그의 말에서 관향 여부와 상관없는 애민 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단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아 항주에 체류하고 있던 해남 표류인을 함께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한 일¹⁶⁾ 역시 그러한 애민 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또한 수차(水車)와 가축에 관한 관심¹⁷⁾이나 가짜 용을 만들어 기우제를 지내는 풍속¹⁸⁾에 관한 기록 등에서도 농민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는 향촌 관료의 애민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양지회의 본관인 제주 양씨는 공민왕 대 양동재(梁棟材, 1314-?)가 금성군(錦城君)으로 봉해진 이후 조선시대 많은 유명인과 과거 합격자를 배출한 나주지방의 유력 사족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18-19세기에는 나주향청의 주요 직임을 도맡았던 6대 성씨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¹⁹⁾ 자신의 성씨가 오랜 세월 동안 나주지방에서 기득권을 지니온 만큼 향촌 관료로서 양지회의 의식은 분명 뚜렷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해록』에 따르면 그 의식은 곧 책임감과 사명감, 애민 의식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지방의 향리나 관료들에 대해서 대중이나 지배층들은 두렵고 간교한 이미지로 당대 사회에 기억되는 편이지만, 실제로는 충효자나 어진 관리, 학자로서 송덕비까지 세워진 인물도 다수 존재하였다.²⁰⁾ 『표해록』 속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을 통해 드러난 양지회

君以此意，告于呂侯，請入狀啓，期於必殺而後已。

15) 然而同漂異域，纔還故國，日未幾閱，遽欲告法者，似近迫狹。又況海南漂人八員，幸逢吾等，譯通還國，則此吾等爲國家得八民也。若殺耽羅二十餘人，則是爲國家失二十民也。切未贖罪，而以直報怨，不亦可乎？

16) 我國海南人八員，以前數年漂到太平府，不能通譯，不自達情，因滯未還，蓋昧字故也。余一見感傷，相與問答，知爲我國人，而以書譯告，竟得同返。

17) 前有大野，專用水車灌苗，而車尾有輪，駕牛代灌，亦一奇技也。 / 牛羊與吾東同，而豕大如牛，耳如蕉葉，垂曳地，價至七八千文之多矣。

18) 時南土大旱，十餘人作假龍舟，金飾頭角，使童子着繡衣入龍腹，設樂鼓舞，祈雨舟中，若吾東獅子戲焉。

19) 조선시대 제주 양씨의 나주지방 내 세력과 지위에 대해서는 김동수의 「朝鮮時代 羅州 地方의 有力士族」(『牧鄉』 II,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1996)와 나선하의 『조선 후기 羅州 鄉史 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를 참조하였다.

의 모습은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해왔던 향촌 관료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작자에 대한 인물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인간적 자질과 내면의식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에 이 사건의 의미는 그만큼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Ⅲ. 사건 중심적 이야기 구성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에서 드러난 양지회의 관료의식은 『표해록』의 서술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탐라인과 갈등이 시작된 날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양지회는 갈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과 식수를 마련하는 구체적 방안, 그리고 물로 인해 불거진 선상의 다툼까지 사건 순서에 따라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표류 중 사건에 대한 이와 같은 생생한 묘사는 『표해록』의 대표적인 서술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²¹⁾

『표해록』의 서술적 특징은 최두찬의 『승사록』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두 작품은 동일한 표류 사건을 두고 집필한 것이지만 그 기술 태도나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물 항아리가 이미 깨져서 죽을 끓이지 못하게 되었다. 사람들 모두 쌀을 씹어서 넘기니 배고픔과 목마름이 따라왔다. 이에 비로소 바닷물을 끓여 물을 얻자는 의논이 있었다. 이것은 소주를 만드는 방법과 같았다. 먹기에는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었다. 흰쌀을 꺼내 와 조금만 넣고 사발에다 팔팔 끓였다. 먹어도 비록 요깃거리가 되지는 않아도 배가 고평 죽는 것만은 면할 수 있었다.²²⁾

인용문은 『승사록』에 기록된 식수 문제를 겪은 날의 장면이다. 그 내용을 『표해록』과 비교해보면, 최두찬은 물로 인하여 고통과 다툼이 발생한 내용 등을 모두 생략한 채 바닷물을 끓이는 방법을 통해 아사(餓死)를 면할 수 있었다고만 간략히 서술하였다. 물론 탐라인과의 갈등 문제도

20) 권기중,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경인문화사, 2011), 249-253쪽.

21) 박진성, 앞의 논문, 370-387쪽.

22) 최두찬, 『승사록』, 1818년 4월 18일.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주도하고 사건의 전말을 푼진하게 묘사한 양지회와 달리 최두찬은 관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서술 역시 그 위기에 비해 지나치게 소략하다.

동일한 상황에 대한 이와 같은 서술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일단 문제 해결을 누가 주도했는가에 따라 서술도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기록이라도 자신이 어떤 상황을 주도하고 사건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면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의 기록들이 표류 중 작성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표류라는 상황과 배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건은 모두가 공유하기 마련이고, 그 가운데서도 식수와 식량 문제 해결은 그 주도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서술 차이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표류 자체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 차이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표해록』과 『승사록』의 표류 도중 기록들을 비교해보면, 그들이 경험하는 사건은 대체로 동일하다.²³⁾ 그러나 표류를 받아들이는 두 사람의 인식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앞선 논의에서 양지회가 표류 당시 가장 연장자이자 관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최두찬은 그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다음 예문에 잘 나타나 있다.

- ① 4월 19일. 바람이 조금 누그러지자 바다 빛이 맑고 깨끗하였다. 아침 해가 바닷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해가 떠오르려고만 하고 아직 떠오르지 않았을 즈음에는 붉은 파도와 흰 물결이 만리를 밝게 비추어 빛났으니 근심 속의 즐거움이었다. 이에 <적벽사(赤壁詞)> 한 편을 읊고, 이어서 시 한 수를 지었다.

浮世彭殤不足悲	떠도는 삶 장수하든 요절하든 슬퍼할 일 아니니
人生定命有前期	인생의 정해진 명은 전생에 기약 있었다네.
今朝小得風濤歇	오늘 아침 바람과 파도 조금 잦아들으니
病客間吟赤壁詞	병든 나그네 한가로이 <적벽사>나 읊누나. ²⁴⁾

23) 『표해록』과 『승사록』의 표류 시기 기록을 보면, 식수 문제 외에도 태풍을 당했을 때 돛을 자르고 말을 빠뜨려 배의 침몰을 막은 일이나 강남태평부의 배가 식량만 투척하고 떠난 사건, 제비가 날아들자 육지가 가까워졌다고 착각한 일화, 어린아이 두 명이 요절한 사건 등등 당시 경험한 사건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② 4월 23일. 큰 비바람이 불어서 종일 개지 않았다. 이날 밤에 사나운 풍랑이 크게 일어 선관(船板)이 전부 올랐다. 나는 피곤하여 드러누워 잠을 잤는데, 코를 고는 소리가 천둥소리와 같았다 한다. 김이진 군이 이 때문에 내 몸을 흔들기도 하고 발로 차서 깨우며 말하였다.

“바람이 이와 같은데 무슨 겨를이 있어 쿵쿵 주무십니까?”

내가 말하였다.

“바람이 이와 같은데, 잠을 안 자면 무엇을 하겠는가?”²⁵⁾

표해 도중 몇 번이고 찾아오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침착하고 여유를 갖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니다. 양지회 역시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잠조차 이루지 못했다. 이는 표류를 겪는 보통 사람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위의 두 예문을 살펴보면 최두찬은 일반사람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불안감이나 절망감보다는 여유롭고 낙관적인 자세로 표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비바람 그치고 고요함이 찾아온 바다에서 아무리 일출의 장관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한시를 읊고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표류인들에게 바다는 가장 두려운 존재이자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인용문만 보더라도 비바람과 풍랑이 찾아온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최두찬은 일출의 낭만을 즐기며 시를 읊거나 풍랑으로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서 끈히 잠을 청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표류가 시작될 때 그는 ‘막비명(莫非命)²⁶⁾이라 하면서 표류 자체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모습도 보였다. 심지어 최두찬은 자신이 살해될 뻔했음에도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표해록』에 따르면, 최두찬은 양지회와 함께 탐라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귀국했을 때 그들을 형조에 고발한 장본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당 사건을 『승사록』에 기록하지 않았다. 단지 ‘사람의 이치가 사라져서 상하의 구분과 노소의 의리에 대한 분별이 전부 없어졌다’²⁷⁾는 짧은 말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정을 유추할 뿐이다.

24) 최두찬, 『승사록』, 1818년 4월 19일.

25) 최두찬, 『승사록』, 1818년 4월 23일.

26) 최두찬, 『승사록』, 1818년 4월 8일, “다음 날 새벽까지 잇달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하다 멈추다 하였다. 미친 듯한 파도와 성난 물결에 사방을 돌아보아도 끝이 없었다. 나는 ‘莫非命(운명 아닌 것이 없다)’이라는 석 자로 김이진 군을 위로하고 힘쓰도록 하였다.”

27) 최두찬, 『승사록』, 1818년 4월 24일.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최두찬은 본디 낙천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현실 인정과 적응이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성격 탓인지 『승사록』은 표류 현실의 심각한 이야기는 자제하고 오히려 표류로 인해 마주친 낯설고 신비로운 정경을 인상적으로 그려내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²⁸⁾ 최두찬이 자신의 표류기를 『승사록』이라 이름한 것 또한 장건이 뗏목을 타고 황하의 근원을 찾다가 견우성을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세계와의 신비로운 만남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최두찬은 표류라는 사건을 통해 예기치 않게 중국에서 시명을 떨치고 많은 문사들과 교류를 나누는 자신이 장건과 닮았다고 생각하였다.²⁹⁾ 즉, ‘승사록’이라는 이름 자체에 표류를 신비하고 낭만적으로 인식하려는 작자의식이 깃든 것이다.

따라서 『승사록』은 표류 자체 이야기보다는 표류를 통한 새로운 경험과 만남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표류인으로서의 불안한 심사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 사람을 구경하기 힘든 강남 지역에서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을 갖춘 조선인의 방문은 그야말로 최대의 화제가 되었다. 특히, 최두찬의 시작(詩作) 능력과 『승사록』은 현지 강남 문인들과의 교류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표류인들이 강남에 체류하는 동안 거의 매일 중국 선비들이 찾아와 최두찬과 대화를 나누고 『승사록』을 구경하며 심지어 초록까지 해 갔다.³⁰⁾ 그 수를 헤아려보면, 최두찬이 정해현에서 교유한 인물만 20여 사람에게 수창한 시가 30수를 넘고 항주 태평부에 머물 때에는 무려 40명이 넘는 인물과 교유하면서 수창한 시가 90여 수에 이른다. 그가 교유한 인물들은 대부분 지역 수재였지만 서법가 주패란(朱佩蘭), 강남삼가(江南三家) 도탁(屠倬), 문림랑(文林郎) 주원관(周元權), 직례주(直隸州) 심기잠(沈起潛), 중의대부(中議大夫) 손양중(孫仰曾) 등처럼 저명한 인물도 있었다. 이 가운데 주원관과 심기잠으로부터는 『승사록』의 서문을 받기도 하였다. 최두찬은 이들과 주고받은 서문과 시들을 모두

28) 이은주, 앞의 논문, 156쪽.

29) 최두찬, 『승사록』, 「자서」. “옛날에 장건이 외국에 사신으로 갈 때 뗏목을 타고 황하의 근원을 찾다 우두성(牛斗星)을 범하여 『박물지(博物誌)』를 지은 것이 세상에 전해진다. 나도 장건과 같은 부류라 할 수 있다.”

30) 최두찬, 『승사록』, 1818년 5월 2일, “관에서 하루를 머물 때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바다에 표류하였던 상황을 두루 적었다. ‘승사록’이라 이름을 붙였으니, 장건이 황하의 근원을 찾았던 일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월중(越中)의 사대부들이 날마다 찾아왔고 초록해 가는 사람도 있었다.”

『승사록』에 기록하였다.

최두찬은 표류 전 제주에 있는 동안에도 시고(詩稿)를 남길 만큼 시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³¹⁾, 현실적으로는 마흔의 나이에 입격하지 못한 지방 거인의 신분이었다. 문재(文才)를 지닌 불우한 처지의 인물이 외국에서 지기(知己)를 만나 문명(文名)을 떨치고 재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례는 박제가, 유득공 같은 조선 후기 북학파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승사록』이 표류기로서는 드물게 개인작품을 포함하여 총 168수의 시가 수록된 것 역시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에 대한 침묵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표류기를 신비롭고 낭만적인 경험담과 문재를 과시하는 방편으로 활용한 최두찬의 입장에서 굳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양지회의 『표해록』은 당시 교유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양지회 역시 최두찬과 함께 현지 문사들과의 만남 자리에 여러 번 참여하였다. 하지만 관련 기록은 매우 소략하다.

정해현 수재 조진현의 집을 방문한 날 양지회는 그의 집을 방문한 사실만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교유에 대해서도 매일 남방현사들이 찾아와 그들과 어울리며 나그네의 우울한 심사를 달랬다는 몇 마디 말로 간결하게 정리하였다.³²⁾ 『표해록』속 중국 문인과의 교유 정보는 대체로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표해록』에는 양지회의 시는 물론이고 그들과 주고받은 시가 한 작품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방문한 사람이 누구이고, 대화를 나누거나 시를 써주었다는 식으로 축약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기록만 놓고 보면 양지회는 당시 교류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오로지 표류인 모두가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뿐이었다.

- ① 다음 날 진해현을 지났다. 현리(縣吏)가 와서 우리에게 문정하고는 먼저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뒤에 나와서 말하기를, “본현은 길을 잘못 든 것이요. 접대하는 관례가 전혀 없으니 영파부 쪽으로 가야 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31) 최두찬, 『승사록』, 「자서」. “침에 있을 때 지은 시고(詩稿)는 시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왔다. 그런데 태풍을 당한 날에 결국 물에 떠내려가 잃어버렸다.”

32) 初八日。余等三人聯袂併進曹秀才振絢。亦來會連日所與遊，皆南土賢士，以故稍慰羈懷而已。

우리들은 곧장 영파부로 향하였는데, 탐라인들이 떠들어대기를, “이곳에서 분명 양지회·최두찬·김이진 세 사람이 몰래 현전(縣錢)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들을 깨우치며, “만리를 동행하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저들이 현의 규정대로 한 것이거늘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탐라인들이 능욕함에까지 이르자 최두찬 군이 다투길 그치지 않으며 반드시 관리에게 물어보고자 하였다. 나는 직불의(直不疑)가 금을 보상한 일³³⁾을 들어 타이르고 바쁜 여정이 걱정되었기에 함께 출발하였다.³⁴⁾

- ② 14일. 담성현 홍화포점(紅花鋪店)에 도착하여 묵었다. 당시 노나라 지역이 몇 년 동안 가물어서 가을걷이가 한창이었지만 인심은 점점 사라져 밥을 얻어먹을 곳이 없었기에 일행들이 모두 굶주렸다. 나는 표류할 때의 일을 빌려 너그럽게 타일렀다. 마을에 들어가려 하니 현리(縣吏)가 물리치며 말하기를, “본래의 관원은 멀리 출장을 가고 대리관만 있으니 이국의 사람들을 어찌 영접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길, “대리관 또한 관리이지요. 중국에 들어오고 나서 현에서 차례대로 속식(續食)하였거늘, 그대들은 주공과 공자의 땅에 살면서 도리어 아박한 풍속이 있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한참 뒤에 현리가 들어가 현주에게 아뢰자, 현주가 그제야 알고서 우리를 들어오라고 했다.³⁵⁾

첫 번째 인용문은 귀로에 올랐을 때 양지회를 포함한 사인들이 몰래 뒷돈을 챙겼을 것이라 의심하는 탐라인과의 갈등 장면이다. 주로 탐라인과의 갈등에 의한 내부적인 문제는 표류인들의 분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귀환일정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양지회도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다투길 그치지 않는 최두찬이 이해는 되었지만 갈 길이 너무도 멀고 바깥기에 만류하는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외부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 양지회 일행이 담성현의 홍화포에 이르기까지 표류인들은

33) 직불의(直不疑)가 금을 보상한 일: 원문에는 ‘雋不疑’로 되어 있으나 이는 ‘直不疑’의 오기이다. 직불의(直不疑)는 한문제(漢文帝) 때 낭관을 지냈다. 당시 같은 속소를 쓰던 낭관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실수로 같은 방을 쓰던 다른 동료의 금을 가져갔다. 금 주인이 직불의를 의심하자 직불의는 사과하며 금을 사다주었다. 그 뒤에 고향에 갔던 낭관이 돌아와서 자기가 금을 잘못 가져갔으며 금을 돌려주자, 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대단히 부끄럽게 여겼다고 한다.([漢書] 권46, 「直不疑傳」)

34) 翌日, 過嶺海縣. 縣吏來問我情, 先入府中, 良久出曰: “本縣之枉道也, 果無接待之例, 宜向寧波而去.” 余等直向寧波府, 耽羅人等喧言曰: “此必梁崔金三人暗受縣錢也.” 余諭之曰: “萬里同行, 寧有此理, 彼以縣規, 吾復何言?” 耽羅人至於凌罵, 崔君斗榮爭之不已, 必欲質官. 余以雋不疑償金事諭之, 而爲憫行忙, 與之偕發.

35) 十四日. 到郟城紅花鋪店, 止宿. 時魯國數年旱荒, 而秋稻方熟, 人心稍解然, 而無由得食, 從者皆飢. 余引漂海時事, 以寬諭之. 及入縣城, 縣吏却之曰: “本官遠出, 雖有代理官, 異國之人, 何以迎接?” 余曰: “代理官亦官也, 自入中國, 縣次續食, 而爾生周孔之國, 反有鄙薄之俗耶?” 良久, 縣吏入告縣主, 縣主始知之, 招入余等.

속식(續食)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며칠 째 굶주리고 있었다. 양지회는 그런 표류인들을 타이르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였다. 담성현에 도착하여 그 사정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대리관이 나와 거절 하지만 이내 양지회가 그 야박한 풍속에 분을 토하자, 결국 현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처럼 양지회는 귀환 도중 발생한 내부적·외부적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양지회는 연장자이자 관료로서 표류인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고 귀국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 표착한 이후로도 귀환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돌발 상황 해결에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표해록』도 자연스레 사건 중심적 이야기로 채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 중심적인 이야기 구성은 당시 표류 사건에 대한 고증적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표류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나 서사문학으로 재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선 후기 야담이나 한문단편집에 표류담이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요인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IV. 복합역경담의 서사문학화

양지회의 『표해록』이 지닌 또 다른 서술적 특징은 사건 위주의 복합적인 이야기 구조 속에서 서사문학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 특징은 조선 후기 문학풍토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표류담의 작품화 경향과도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일찍이 표해록 관련 연구에서 윤일수는 조선 후기 표류담이 특정 장르로 작품화되면서 변화되는 특징에 주목한 바 있다.³⁶⁾ 그는 표류담을 단순역경담과 복합역경담으로 나누고 단순역경담은 고난보다는 표류지에서 경험하는 경이로운 경관이나 풍속에 대한 감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작가의 정서 중심으로 서정문학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복합역경담은 표류의 고난 외에 악인을

36) 윤일수, 「표류담의 전통과 작품화」, 『한민족어문학』 21호(1992).

만나 약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구사일생으로 귀국하는 것이 두드러지며 당시 고난이 더욱 유의미해지기 위해 사건 중심의 서사문학으로 작품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전자의 예로 가사화된 이방익의 〈표해가(漂海歌)〉를, 후자의 예로 〈부남성장생 표대양(赴南省張生漂大洋)〉과 〈표만리십인전환(漂萬里十人全還)〉으로 소설화된 장한철의 『표해록』을 들었다.

이상 윤일수의 표류담 분류와 작품화 경향론에 따르면, 최두찬의 『승사록』은 고난과 역경보다는 이국 풍광에 대한 서술과 현지 문사들과 수창한 서정적 시문이 대부분이므로 단순역경담의 작품화로 볼 수 있다. 반면, 양지회의 『표해록』은 복합역경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양지회의 『표해록』은 장한철의 경우처럼 소설로 재창작되지도 않았고, 소설과 같이 치밀하고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작품의 전체 구성이나 사건 중심적 이야기 가운데 일부 소설적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작자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표류기를 한 편의 서사문학으로 완성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서사문학의 관점에서 『표해록』 전체의 서사 단락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 기근 진휼령에 따라 양지회가 나주에서 곡식을 싣고 출발.
- (2) 제주로 향하며 높은 암초와 바람, 파도로 어려움을 겪고, 좌초된 제주 상인선을 구함.
- (3) 제주 도착 후 진휼활동과 시조묘를 배알함.
- (4) 4월 8일 탐라 공물선을 타고 귀로에 올랐다가 백 리도 못 가 안개와 거센 바람으로 표류 시작.
- (5) 표류 중 바닷물을 끓여 만든 식수로 목숨을 연명하고 탐라인들과 갈등을 겪고 살해 위협을 당함. 아이 두 명이 요절함.
- (6) 4월 25일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되고 다음 날 절강성(浙江省) 영파부(永波府) 정해현(定海縣) 보타산(普陀山) 관음사(觀音寺)에 도착하여 잠시 머무름.
- (7) 정해현에 도착하여 문정(問情)을 받고, 현지 구경 및 문사들과 교류함.
- (8) 5월 8일 지역 수재들과 송별식 후 배를 타고 귀로에 오름. 강남의 풍물 및 제도 소개, 강남의 산천 풍경에 대한 지리 정보와 유적지와 출신 인물에 대한 회고.
- (9) 5월 21일 항주태평부에 도착하여 머물다가 앞서 표류한 해남인 8명을 만나 함께 귀로에 오름.
- (10) 7월 27일 연경에 도착하여 탐라 표류인 12명을 만나고, 집과 나주향청에 소식을 전함.

- (11) 8월 16일 귀로에 올라 9월 17일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도착. 탐라인의 모살(謀殺) 사건을 형조에 고하려는 최두찬을 말립.
 (12) 11월 13일 나주 집에 도착함.

이러한 서사 흐름과 단락 가운데 서사문학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이다. 이 사건은 표류 인물들의 내부 갈등과 위기를 담은 이야기로서 『표해록』을 복합역경담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문학작품에서 갈등은 서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자 작품의 흥미를 유발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표해류 작품에서 표류인 사이의 갈등은 종종 등장해왔다. 표류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음을 먹고 남의 말을 따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살고자 하는 욕심에 자기 몸뚱이만 챙기거나, 남을 타하며 공동의 약속에 협조하지 않는 인간상으로 자연스레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인 것이다. 최강현은 이러한 인물들과의 갈등을 ‘정(正)과 사(邪)의 갈등’이라고 하였는데³⁷⁾, 최부의 『표해록』에서 배가 빨리 파손되길 외치던 군인들과의 갈등이나 장한철의 『표해록』에서 장한철의 권유로 배를 탄 것을 원망한 김서일(金瑞一)과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두 작품의 경우, 표류 초기 비이념적이고 비협조적이었던 인물들이 이내 동조하면서 갈등이 쉽게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양지회의 『표해록』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귀환할 때까지 점점 심해지다가 귀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난다. 그만큼 탐라인과의 갈등은 작품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양지회는 이 사건이 발발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종결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작품 안에 담아내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흐름이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라는 서사문학의 기본 구성 단계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표해록』에 서술된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을 다섯 단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37) 최강현, 「한국 해양문학 연구: 주로 「표해가(漂海歌)」를 중심으로」, 『해양문학을 찾아서』(집문당, 1994), 118-122쪽.

- (1) 발단: 표류 중 식수 문제와 식량 문제가 발생하자 양지회와 최두찬이 나서 자체 규율을 정함.
- (2) 전개: 기운이 센 탐라인들이 약속을 어기고 멋대로 굴며 양지회 최두찬과 마찰을 빚음.
- (3) 위기: 약속에 불만을 품은 탐라인들이 양지회와 최두찬을 바다에 빠뜨려 죽일 것을 도모함.
양지회와 최두찬은 잠을 교대로 자면서 위기를 벗어남.
- (4) 절정: 표착 후 탐라인들의 의심과 모욕이 심해지고 도둑질까지 자행함. 최두찬이 관아에 고발하려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해짐.
- (5) 결말: 귀국 후 최두찬이 형조에 고발하여 단죄하길 요청하나, 양지회의 만류로 그치고 사건이 종결됨.

이처럼 표류 초기에 촉발된 갈등이 귀환할 때까지 지속된 기저에는 상인과 사인 신분 간의 불신과 저항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양지회는 탐라인들이 상인으로 평소 재물과 이익을 탐하는 것이 심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였다. 탐라인들 역시 사인들이 자기들 몰래 뒷돈을 챙겼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처지였다. 양지회는 양측의 갈등이 각기 신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³⁸⁾ 즉,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은 문제였기에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깊은 갈등은 서사에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윤일수는 하나의 사건과 갈등을 주제로 완성도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표류담이 작품화되면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이라고 하였다.³⁹⁾ 일반적으로 표해류 작품은 표류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개개 사건들을 날짜별로 나열하는 것에 그친다.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독립적인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이것이 표류라는 상황 아래 하나의 이야기로 묶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성을 가지고 작품화되기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지회는 표류 중 단편적인 사건을 언급했던 것과는 또 별개로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을 서사 단계에 따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이야기 자체만으로 한 편의 서사를 완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표해류 작품보다 한층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38) 필자는 당시 탐라인과의 깊은 갈등이 조선 후기 신분체제 동요와 사족지배체제의 해체 현상을 잘 보여준다고 말한 바 있다(박진성, 앞의 논문, 375쪽).

39) 윤일수, 앞의 논문, 358쪽.

『표해록』의 서사문학적 특성은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제주상인선 구출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멀리 바라보니 5리쯤에 배 하나가 보였는데, 배 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급히 소리치고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나는 이상하여 촌사람에게 물었더니 촌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분명 위급한 배로 우리에게 구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촌사람에게 이르며, 빨리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그들을 구하여 함께 돌아오라고 하였더니, 촌사람이 말하기를, “운이 없으면 배가 파손될 것이니,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꾸짖으며 말하기를, “천지의 지대한 덕이 생명이니 국가에서 사람을 살리면 큰 상을 내릴지언정 어찌 사람을 살리고도 재앙 받을 이치가 있겠는가? 만약 불행하게 함께 침몰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먼저 나설 것이다”라고 했더니, 촌사람이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이에, “저 배에 실려 있는 것의 반을 버리면 반드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놀라 말하기를, “이 무슨 말인가? 저 배의 살고 죽을 운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대 몸에 달려 있네. 하늘이 흰혀 살펴보고 있으니 비록 혼자만 살고자 한들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다시 꾸짖고 질책하여 배를 접근시켜 그들을 구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곧 탐라 상인이었다. [...]

어느덧 한라산에 매우 가까워졌다. 겨우 선창에 도착하니 바닥의 돌이 날카로워 순식간에 닻줄을 잃어버리고 배가 꼭 파손될 것 같았다. 운씨와 고씨 등 여섯 사람이 평소 바닷길에 익숙하였기에 힘을 다해 배를 이끌고 편한 방향으로 지시하자 겨우 나무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배 안의 사람들이 서로 칭찬하며 이는 탐라인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하였다.⁴⁰⁾

일반적인 표해류 작품은 출항-표류-귀환-후기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야기의 시작도 보통 표류 직전의 출항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서두의 출항 장면에서 작자는 보통 출항일시와 장소, 목적지 및 승선동기, 승선인원 등을 기록한다.⁴¹⁾ 그런데 양지회의 『표해록』은 서두에서 일반적 작품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야기가 표류 전 출항처인 제주가 아니라 나주에서

40) 遙看，五里許有一船，船上數人，急呼跳哭。余怪問焉人，焉人曰：“此必危船，望我求濟也。”余謂焉人曰：“亟乘小舟，往救同回。”焉人曰：“不利逢破，決不可近也。”余詰曰：“天地之大德曰生，而國家有活人之重賞，寧有活人受殃之理乎？如有不幸而同沒，則吾必先自當之。”焉人知不可拒，乃曰：“彼船所載分半，必救焉。”余驚曰：“是何言也？彼船死生之命天乎無，而都在爾身上矣。天鑑與孔昭，雖欲獨活其能得乎？”余且喻且責，使逼船濟之，其人乃耽羅商人也。[...] 於焉之間，漢挈逼前，纔到船壘，地磚石齒，造次失纜，船必顛破。尹高等六人素貫水程，極力引船，指示便方，僅泊津頭。一船相譽曰：“此耽羅人力也。”

41) 간혹 서두에 최부처럼 나주에서 제주까지의 여정을 간단히 정리하거나 『승사록』처럼 제주에서의 행적을 짧게 언급한 경우, 『표주록』(이지향)과 〈표해가〉(이방익)처럼 작자소개를 덧붙인 경우도 있다.

시작하고 이어서 물에서 제주까지의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제주까지의 여정은 험난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표해록』 서두에 보이는 나주에서 제주까지 한 달 남짓한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갑작스런 바람으로 항로를 이탈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암초와 높은 파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⁴²⁾ 게다가 인용문에 서처럼 해남과 진도 사이를 통과할 때에는 좌초된 탐라 상인의 배를 발견하여 그들을 구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주 근처에서는 배가 암초지에 빠져 파손될 뻔했다가 앞서 살려주었던 탐라 상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기도 했다.

양지회는 이처럼 위험했던 순간들을 자세히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독백을 비롯한 촌사람과의 언쟁 등을 삽입해 현장감과 긴박함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나주에서 제주까지 이르는 동안 겪었던 여러 사건을 완성도 있는 하나의 역경담으로 탈바꿈 시키면서 표류담을 복합역경담화하였다. 이 이야기는 향후 전개될 표류담에 비하면 미약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역경담이 포함됨에 따라 작품 전체적으로 서사성이 풍부해지고 이야기의 흥미도 배가되었다. 이는 복합역경담이 지닌 장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작품 전체적으로 볼 때 초반에 등장하는 이러한 위기와 구조의 경험은 향후 전개될 표류 사건의 조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의 소재 면에서 탐라인을 대상으로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날 위기로 부터 구조해주고 보답을 받았던 일과는 반대로 표류 중 원수지간이 되는 탐라 상인들과의 아이러니한 관계는 작자 자신이나 독자 모두에게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임이 분명하다. 작자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사전에 배치한 것 같다. 이를 소설적 요인에 따라 분석해보면 제주까지의 역경담은 향후 표류를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복선은 소설에서 이야기의 전개나 주제를 암시하는 작법으로 스토리를 더욱 짜임새 있게 만들고 이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작품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장한철의 『표해록』이 〈부남성장생표대양〉과 〈표만리십인전환〉등으로 소설화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42) 翌日, 至中洋泊宿. 又翌日, 被狂颶, 誤至長沙浦. 又翌日, 風狂滔翻, 至水營鳴羊項, 石齒風急, 海國波驚, 船回檣旋.

암시적 이야기의 삽입이다.⁴³⁾ 장한철은 두 번째 조난을 당하여 정신을 잃었을 때 비몽사몽간에 한 미녀가 소복을 하고 음식을 가져다주는 꿈을 꾸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청산도에 표착하여 용왕당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소복을 한 미녀가 음식과 술을 권하였는데, 바로 꿈에서 만난 그 여인이었다.⁴⁴⁾ 장한철은 그녀와 사는 곳이 달라 평생에 만날 일이 없는데도 이러한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전생의 인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⁴⁵⁾ 그리고 마침내 그녀와 운우지정(雲雨之情)을 맺는다.

이 이야기에서 꿈은 주인공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기이한 인연을 맺게 될 것임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는 소설화 과정에서 허구적 색채를 가미하는 것과 함께 앞일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해류 작품은 낱자의 흐름에 따른 현실 체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설화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암시성이나 허구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장한철의 『표해록』은 이례적으로 꿈 이야기가 삽화되어 있어 미래를 암시하고 허구적 색채를 가미하는 데 용이하였고 이에 따라 소설화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지희의 경우 꿈과 같이 허구적인 문학 장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복선 역할의 작은 역경담을 의도적으로 삽입해 앞일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소설적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현실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에 허구적인 소설과는 차별화되지만 서사적 구성 요소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고 복선이라는 장치까지 활용한 점에서 수준 높은 문학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양지희는 최두찬과 마찬가지로 만년에 이르도록 등과하지 못하고 향청에서 수령을 보좌하는 처지였지만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다. 『표해록』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특정 지역에 이르렀을 때

43) 윤일수, 앞의 논문, 358쪽.

44) 장한철, 『표해록』. (辛卯正月初六日) 余聞此言, 驚魂飛越, 不能自定, 欲哭而聲不出. [...] 蓋時神不守舍, 身在幽明間矣. 非夢似夢間又有一美娥, 服素進食于余 余乃勵精開眼上頂, 所見皆是昏夢中也. [...] (正月初九日) 有老婦迎余曰: “郎子遠客也, 我有旨酒, 豈無待賓之禮乎?” 遂邀余坐廡下, 而使素服美娥進食于余, 傾壺而勸之. [...] 余之初見素服之娥也, 心甚欣然, 脉脉偷眼, 似是孰面, 而不能記也. 及夫進食于余也, 恍然記得, 乃頃者風波昏夢中進食之娥也.

45) 장한철, 『표해록』. (正月初九日) 噫, 彼在青山我居瀛州, 隔千里之滄波, 無一面於平生, 然而昔者進食於夢中, 今焉拭目於廡下, 非有夙世緣業者, 能如是乎?

그곳의 역사나 지리에 대한 전고를 소개하고 있고, 경전과 사서, 문집 등의 구절을 적절하게 인용하여 감회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문학적 소양을 갖춘 재지사족으로서 『표해록』은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발휘하기에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더구나 양지회가 살던 나누는 최부나 양성(梁成)을 비롯하여 과거부터 많은 표류담이 전해지던 곳이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자에게 이러한 문학적 환경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전형적인 표류담보다 한층 발전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지회는 외적 갈등 요인인 표류라는 상황과 내적 갈등 요인인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표해록』을 완성도 높은 서사문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그 역량을 증명하였다. 그가 자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은 중국 내 노정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해록』에 기록된 회계현부터 항주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 회계현 이후 홍주, 황주, 풍성을 지나 항주에 도착하는 7일의 여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홍주와 황주, 풍성은 회계현에서 서쪽으로 수십 km 떨어진 도시로 거리나 귀환 상황을 따져볼 때 표류인들이 지나칠 곳은 아니었다.⁴⁶⁾ 양지회는 그곳까지의 거리나 출신 인물, 고사 등을 상세하게 적고 있어 단순 착각에 의한 오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보다는 훗날 자신의 작품을 집필하면서 기행문으로서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실제 노정 외 유명 지역의 정보를 일부러 삽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양지회는 귀환 후 『표해록』을 작성하면서 『승사록』을 적극 참조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작품 완성도를 향한 의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양지회의 『표해록』과 최두찬의 『승사록』을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거의 똑같이 기술된 부분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관련 기사들을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표에서처럼 『표해록』은 여러 부분에서 『승사록』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⁴⁷⁾ 양지회가 『승사록』을 참조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46) 최부의 『표해록』이나 최두찬의 『승사록』에도 회계현에서 항주까지는 하루나 이틀 만에 도착하는 짧은 여정으로 기록되어 있다.

47) 오늘날의 문학풍토에 따른다면 이러한 양상은 표절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학풍토에 따른다면 표절이라는 개념보다 발췌나 부연, 참조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표절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에 대해 많은

표1- 『표해록』과 『승사록』 유사 원문⁴⁸⁾

표해록	승사록
<p>良久, 竹根木梯, 乘流而下, 余方喜其涯涘漸近矣. 是夜風雨大作, 船往如箭, 翊翊視之, 海色蒼蒼. 仰視唯天, 忽見青舳白舫, 相接東來, 疑是東邊有陸, 而南風甚緊, 船不可回, 聽其所之, 乍東乍西. 于時, 舟中無五十人一日之食.</p>	<p>竹根木沫, 乘流而下, 喜其涯岸之漸近矣. 其夜風勢大作, 船往如箭. 明朝視之, 海色又青矣. 徜徉者久之, 忽見青舳白舫, 首尾相接, 自西邊來. 認是西邊有陸, 而南風甚緊, 船不得挽回矣. 聽其所之, 乍東乍西, 時舟中無一日之食矣.</p>
<p>翊日, 余無以自適, 歷叙漂流顛末, 名曰乘槎錄. 浙士夫日來相訪, 至有騰去者.</p>	<p>在官留一日, 無以自適, 歷敘漂流之狀, 名之曰乘槎錄. 取張襄窮河源之義也. 越中士大夫, 日相經過, 有抄錄以去者.</p>
<p>行又十里, 到曹娥江. 時南土大旱, 十餘人作假龍舟, 金飾頭角, 使童子着繡衣, 入龍腹, 設樂鼓舞, 祈雨舟中, 若吾東獅子戲焉. 復乘舟而下, 兩岸屋宇, 皆富商大賈, 滿江船艦, 盡彩鷁畫帆, 高樓傑閣, 壓江頭而爭臨.</p>	<p>行十餘里, 到曹娥江[一名子江]. 時南土小旱, 士人作假龍. 以黃金飾其頭角, 使童子著錦繡衣, 入龍腹中, 作蜿蜒之狀, 鼓舞船上, 甚壯觀也. 復乘舟而下, 江之兩岸, 皆富商大賈家也. 瓦屋粉牆, 橫亘十餘里. 高樓傑閣, 壓臨江頭.</p>
<p>二十五日. 至山海關, 眞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也. 關有提督府. 南有滄海, 曲曲置烟, 北有蛟山, 峯峯置烟, 設三重城, 城門曰, 天下第一關, 外城門曰, 山海關, 誠京北之雄都也. 仍出關, 到聚和店. 北有黑山口, 山有長城.</p>	<p>二十五日晴. 午時, 到山海關, 眞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之地也. 南有滄海, 曲曲置烟臺, 北有蛟山, 峯峯置烟臺. 內設三重城, 內城門曰, 天下第一關, 外城門曰, 山海關, 誠京北之雄都也. 仍出關, 到聚和店, 止宿. 北有黑山口, 山有長城.</p>
<p>二十九日. 清晨起程, 到錦府之高橋駟. 府之得名, 以其錦水也. 北有紅羅山, 蓋此山連延數千里, 在京爲景山, 在通州爲盤山. 日暮, 到小陵河, 遞車, 車不具. 夜三鼓, 始辦由御道傍, 起程. 時皇上方回鑾, 治道吏詰之, 車不得前, 由小道透盤, 行五里許, 抵雙陽店, 時夜已分矣.</p>	<p>二十九日晴. 清晨起程, 到錦府之高橋駟. 府之得名, 以其有錦水也. 北有紅羅山, 蓋此山連延橫亘, 在京爲景山, 在通州爲盤山·砌平山·五名山, 在薊州爲府君山, 在山海關爲蛟山·黑山, 在錦府爲紅羅山, 大抵一山而異其名也. 日暮, 到小凌河, 遞車, 車不具. 夜三鼓, 始辦由御道傍, 起程. 時天子方回鑾, 治道吏詰之, 車不得前, 由小路迤進. 行五里, 抵雙陽店, 時夜已分矣.</p>
<p>十七日. 天子先驅過去. 登亭觀之, 則驟騎據持弓矢, 夾道而馳者. 橫亘百餘里, 皆紅兜綠袍, 別爲三條而去. 中央是黃道, 兩旁是扈從也. 又有大車, 首尾相接, 兩日不絕. 純用白馬, 詩所謂比物而亦行秋令之意也.</p>	<p>是日, 天子先驅過去. 至巳時, 官人報乘輿已發向二道境矣. 登高視之, 則驟騎校, 持弓矢, 挾道而馳者. 橫亘百餘里, 皆紅兜綠袍, 別爲三條而去. 中央是黃道, 兩旁皆扈從也. 又有大車, 首尾相接, 過兩日不絕. 純用白馬, 亦詩所謂比物, 而禮所謂行秋令之意也.</p>

48) 표1의 내용 외에도 양지화와 최두찬이 현지인과 나는 대화 기록 역시 유사한 부분이 많다. 당시 대화에 대해 두 인물 모두 대화의 주체자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두 사람 모두 대화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대화 내용의 유사성은 표1에서 제외하였다.

수 있다.

첫째, 자기 기록의 정확성을 더하고자 한 것이다. 양지회는 자신의 표류기를 귀환 후에 바로 작성하였다. 하지만 표류라는 상황과 뜻하지 않은 이국체험으로 긴장의 나날을 보낸 탓인지 지난날의 경험을 온전히 기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표해록』에 보이는 날짜나 노정의 부정확함과 오류들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거 기억을 되살리고 기록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최두찬의 『승사록』이었다. 『승사록』이 중국 현지에서 작성되었고 강남의 문사들이 초록해 가기도 했으므로 양지회 역시 표류 도중 『승사록』을 의식하면서 그 내용을 눈여겨보거나 일부를 초록해두었다가 귀국 후 『표해록』을 작성하며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⁴⁹⁾ 그리고 초록한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과 어긋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을 더하기도 하였다. 표류 중 바라보이던 배와 육지의 방향을 『승사록』과 다르게 기록하거나⁵⁰⁾ 항주대평부에서 만난 조선인을 제주인이라 했던 최두찬과 달리 양지회는 그들이 해남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⁵¹⁾ 이렇게 양지회는 『승사록』을 참조하고 수정해나

문인들이 비판과 경계의 말을 남겼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학적비평어로서의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문학작품에서 표절논란이 적극 대두된 것은 근대문학 시기에 이르러서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수많은 연행록 가운데에는 전대의 연행록 정보를 답습적으로 초록하거나 적극 인용하면서 부연, 확장해나간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이기지는 『일암연기』를 작성하면서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면서 그 정보를 부연하고 확장한 바 있다. 김동건, 『一庵燕記』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 『민족문화』 40호(2012), 238-244쪽.

49) 『표해록』 내용 가운데 양지회가 현지에서 표류기를 작성하고 ‘승사록’이라 이름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지만(余無以自適, 歷叙漂流顛末, 名曰乘槎錄), 이 내용 또한 최두찬의 기록(無以自適, 歷叙漂流之狀, 名之曰乘槎錄)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양지회는 작품 말미에 ‘표류 사실을 말로 다하기에는 막힘이 있기에 표류의 전말을 기록해 한 책으로 완성하여 그 고통의 회한을 담아내었다(言之哽塞, 何足備說乎, 茲記漂海顛末, 錄成一篇, 以寓痛苦之懷云爾)’고 말하고 있어 앞의 말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로 보아 이 내용은 양지회가 최두찬의 기록을 참조하는 가운데 오류를 범한 것이라 여겨진다.

50) 두 작품의 4월 24일 표류 기사를 보면, 『승사록』은 “明朝視之, 海色又靑矣. 徜徉者久之, 忽見靑舳白舫, 首尾相接, 自西邊來. 認是西邊有陸, 而南風甚緊, 船不得挽回矣(다음 날 아침에 보니 바다 빛이 또 푸르렀다. 오래도록 배회하다 홀연히 푸른 배의 고물과 흰 배가 보였으니, 앞뒤를 서로 맞대고 서쪽 가로부터 오고 있었다. 서쪽에 육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남풍이 심하여 배를 돌릴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표해록』은 “翌朝視之, 海色蒼蒼. 仰視唯天, 忽見靑舳白舫, 相接東來, 疑是東邊有陸, 而南風甚緊, 船不可回(다음 날 아침에 보니 바다 빛이 푸르렀다.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홀연히 푸른 배의 고물과 흰 배가 보였으니, 서로 인접하여 동쪽에서 오고 있었다. 동쪽에 육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남풍이 심하여 배를 돌릴 수 없었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두 기록은 거의 똑같지만 배의 이동 방향과 육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면서 자신의 표류 기억을 최대한 정확하게 재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지회가 『승사록』을 적극 참조한 것은 오히려 최두찬의 작품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표류기를 쓰고자 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승사록』은 애초에 표류의 전말을 기록한 작품에 지나지 않았지만 강남인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향후 중국 문인들과의 시문교류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승사록』은 당시 수창했던 시문들도 점차 채워지며 문학성이 짙어졌고, 결국 기존 표해류 작품과 다른 개성적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당시에 양지회는 『승사록』에 쏟아지는 현지인들의 관심과 표류 기로서 나날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러한 기억들이 귀국 후 자신의 표류기를 작성하는 데 하나의 자극이 되었고, 이에 『표해록』은 서사성을 갖춘 작품으로서 『승사록』과 차별성을 띤 것으로 보인다. 『승사록』에 비해 표류 상황이나 강남 풍경에 대한 서술이 돋보인다거나 『승사록』에 없는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과 귀국 후 여정 등을 자세히 기록한 모습에서 그 의도성을 엿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 삽입을 통해 문학성을 강화한 『승사록』이나 이야기를 강조하여 서사문학으로 발전시킨 『표해록』은 모두 기존 표해류 작품과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 추구의 기저에는 조선 후기에 증가되고 다변화되는 해외체험 기록들의 탄생이 자리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작자층에 의해 연행록이나 해행록 같은 해외체험 기록이 다량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노가재 연행일기』처럼 일기체와 유기체를 혼합하거나 『열하일기』처럼 일기와 서사, 의론이 복합된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가 등장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문학계의 새로운 변화는 표해류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표해류 작품 역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단순 실기 차원을 넘어 문학성을 갖춘 작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류와 현지 견문에 대한 생생한 기록과 개인 내면의 섬세한 묘사가 잘 갖춰진 작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양지회가 살았던 시대만 살피더라도, 시와 일기체 서술이 혼합된 이지항의 『표주록(漂舟錄)』(1757)이나 극적 체험과 낭만적 이야기, 개인의 내면의식이 잘 발현된 장한철의 『표해록』, 가사 형식으로

51) 『동문회고』의 당시 표류 관련 기록에 ‘海南漂民楊星等八名，靈巖漂民尹光國等四十七名’이라고 되어 있어 양지회의 기록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문회고』四, 「漂民」, (禮部知會太平縣漂民出送咨-戊寅年-).

당시 경험을 장쾌하게 써내려간 이방익의 <표해가(漂海歌)>(1797)는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 조선 후기 변모된 문학과 글쓰기 양상을 잘 보여준다.

양지회의 『표해록』과 최두찬의 『승사록』 역시 이러한 변화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서사성이 두드러지는 양지회의 『표해록』은 작자가 당대 문학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표해류 작품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그 기행문적인 특성에 따라 표해나 이국 체험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와 작가인식, 동아시아적 교류 양상 등만 고찰해왔다. 다양한 계층이 운집한 만큼 표류인들의 내부 갈등이 많은 작품에서 언급되어왔지만, 이에 비해 갈등의 정황이나 상호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류의 최종 목적이 결국 살아서 돌아오는 것임을 염두한다면 표류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적 갈등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양지회의 『표해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에 주목하여 이 이야기의 전개과정과 『승사록』과 대비한 서술적 특징을 살피고, 문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았다. 그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해록』 속 탐라인 갈등 사건의 전개와 해결 과정을 통해 양지회가 향촌관료로서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 애민의를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가 『표해록』에서 사건의 발단과 향후 전개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것은 바로 자신이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탐라인과의 갈등 문제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양지회는 표류 당시 리더의식을 가지고 표류인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최두찬과 달리 현지 문사들과의 교류보다 귀환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표해록』은 사건 중심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양지회는 자신의 표류기를 완성도 높은 하나의 서사문학으로 발전시키

려는 의욕도 보였다. 그는 서사의 기본 단계에 따라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을 기록하고 소설적 장치인 복선을 활용하는 등 복합역경담으로서 서사성과 재미를 한층 강화하였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향한 그의 의도성은 허구적인 노정 정보를 삽입하고 『승사록』의 주요 기록을 적극 참조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소략하였던 양지회에 대한 인물 정보를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표해록』이 지니고 있는 문학적 가치를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지회의 『표해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명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작자 정보의 보완과 『승사록』과 대비한 사실 정보 비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기록에 보이는 최두찬의 모습에 대한 불일치와 현지 대화의 주체자로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에 대해 둘 중 누가 더 자신을 긍정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개진되길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 최두찬 저, 박동욱 역, 조남권 감수, 『승사록, 조선 선비의 중국 강남 표류기』.
휴머니스트, 2011.
- 최부 저, 서인범·주성지 역, 『표해록』. 한길사, 2004.
- 朴趾源, 「書李邦翼事」. 『燕巖集』 권6(『한국문집총간』 252집), 민족문화추진회,
2000.
- 梁知會, 『漂海錄』. 장서각 유일본.
- 李邦翼, 〈표해가〉. 연세대학교도서관소장 『청춘』 창간호, 1914.
- 李之恒, 『표주목』. 국역 『해행총재』 3책, 민족문화추진회, 1974-1981.
- 張漢喆, 『漂海錄』. 국립중앙도서관(필사본).
- 『同文彙考』四. 국사편찬위원회, 1978.
- 『備邊司謄錄』. 인터넷사이트(db.history.go.kr).
- 『朝鮮王朝實錄』. 인터넷사이트(sillok.history.go.kr).

2. 단행본

-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26-27쪽.
- 권기중, 『조선시대 향리와 지방사회』. 경인문화사, 2011, 249-253쪽.

3. 논문

- 김동건, 「『一庵燕記』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 『민족문화』 40집, 2012, 238-244쪽.
- 김동수, 「朝鮮時代 羅州地方의 有力士族」. 『牧郷』 II,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1996, 56-66쪽.
- 나선하, 「19세기 초 羅州 鄉吏層의 契 組織과 邑權의 동향」. 『한국사연구』 130호,
2005, 193-198쪽.
- _____, 『조선 후기 羅州 鄉吏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6-33쪽.
- 박진성, 「신자료 梁知會의 『漂海錄』 연구」. 『어문연구』 44호, 2016, 370-387쪽.
- 유춘동, 「새 자료 서강대 소장, 최부(崔溥)의 『금남표해록』 한글본 연구」. 『열상고전
연구』 53호, 2016, 299-300쪽.
- 윤일수, 「표류담의 전통과 작품화」. 『한민족어문학』 21호, 1992, 358쪽.
- 윤치부, 『韓國海洋文學研究: 漂海類 作品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은주, 「19세기 漂海錄의 모습과 變貌樣相: 崔斗燦의 『乘槎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9호, 2003, 156-176쪽.

정성일, 「한국 표해록의 종류와 특징」. 『도서문화』 40호, 2012.

최강현, 「한국 해양문학 연구: 주로 「표해가(漂海歌)」를 중심으로」.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118-122쪽.

국 문 초 록

이 글은 새로 발굴된 양지회(梁知會)의 『표해록(漂海錄)』이 지닌 문학적인 가치를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이 작품의 서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동시기 표류기인 최두찬(崔斗燦)의 『승사록(乘槎錄)』에는 보이지 않는 표류 중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에 주목하여,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과 그 서술적 특징을 살피고 문학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표해록』을 살펴보면,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은 표류 중 식수 문제로 촉발되었으며, 양지회는 배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자 관료로서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섰다. 그 과정을 통해 연장자이자 관료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 애민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양지회가 지녔던 책임의식은 『표해록』의 서술 방향이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최두찬은 낙천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표류 현실을 고난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승사록』도 심각한 표류 현실에 대한 서술보다는 표류를 통한 새로운 만남과 문학적 글쓰기에 치중하게 되었다. 반면 양지회는 강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기에 표류 중 겪은 다양한 사건들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표해록』은 시문 중심의 『승사록』과 달리 사건 중심적인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표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탐라인 갈등 사건도 각자 다르게 수록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해록』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기록을 통해 양지회가 자신의 작품을 단순 표류담이 아닌 완성도 있는 한편의 서사문학작품으로 만들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서사의 기본 단계에 따라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을 기록하고 소설적 장치인 복선을 활용하는 등 복합적 이야기 구성으로 서사성과 재미를 한층 강화하였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향한 그의 의도성은 허구적인 노정 정보를 삽입하고, 『승사록』의 주요 기록을 적극 인용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소략하였던 양지회에 대한 인물 정보와 의식세계를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양지회와 최두찬 모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재지사족의 처지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과시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표해류

작품이 단순 표류담을 넘어 문학성을 갖춘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6. 12. 20.

심사일 2017. 1. 9.

게재 확정일 2017. 2. 27.

주제어(keyword) 양지회(Yang Ji Hoe), 『표해록』(*Pyo-haerok*), 탐라인과의 갈등 사건(Conflicts with Tamra People), 서술 특징(Narrative Character-istics), 책임감(Responsibility), 애민의식(Love of the People), 서사문학(Narrative Literature), 『승사록』(*Seungsarok*)

Abstracts

A Study on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Pyohaerok*(『漂海錄』) by Yang, Ji Hoe(梁知會):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Seungsarok*(『乘槎錄』)

Park, Jin-sung

This paper examined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Pyohaerok*(漂海錄) by Yang, Ji Hoe(梁知會) newly discovered to research its literary value. Especially, paying attention to conflicts with Tamra people during drift, which is not shown in another drifting record in the same period, *Seungsarok*(『乘槎錄』) by Choi, Doo Chan(崔斗燦), it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is story, and also considered its literary meaning.

According to *Pyohaerok*, the conflicts with Tamra people were triggered by the issue of drinking water during drift. As the oldest person and a bureaucrat in the ship, Yang, Ji Hoe actively took the lead in the solution of the problem, which showed his responsibility, sense of duty, and love of the people as the oldest person and bureaucrat.

Such Yang, Ji Hoe's sense of responsibility became a decisive motivation for the narrative direction of *Pyohaerok* to flow focusing on the incident. Based on optimistic personality, Choi, Doo Chan perceived the drift as a chance to experience the new world, instead of hardship. Thus, his *Seungsarok* focused more on new meetings and lyrical writing through drift rather than the narration of serious drifting reality. On the other hand, Yang, Ji Hoe had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so that diverse incidents during drift were recorded in details. Contrary to *Seungsarok* focusing on poetry, *Pyohaerok* was composed of incident-centered stories. Due to such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drift, the conflicts with Tamra people were also contained differently.

Lastly, the record of diverse incidents shown in *Pyohaerok* showed that Yang, Ji Hoe aimed to create a narrative literary work with completion, instead of a simple record of drift. He reinforced the narrativity and fun with the composition of complex stories like recording conflicts with Tamra people and using foreshadowing depending on the basic stage of narration. His intention toward the work with high completion can be viewed from inserting fictional journey information, and also actively quoting the main records of *Seungsarok*.

The processes above could a bit complement the information of Yang, Ji Hoe that used to be negligent. It also has the value of literary history in the aspect that records of drift in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developing into complete literary works, instead of simple stories of drift.